

인도 샤이드(Sayyid) 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Uttar Pradesh State)의
사하란푸르 지역(Saharanpur District)를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IFR(India Field Research) 14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IFR(India Field Research) 14기 훈련팀에서 2009년 7월 3일 ~ 2009년 7월 21일까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사하란푸르 지역을 중심으로 샤이드 종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목 차

I. 조사설계

II. 들어가는 말

III. 샤이드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2. 정치분야
3. 사회분야
4. 경제분야
5. 생활분야
6. 문화분야
7. 교육분야
8. 종교분야
9. 기독교 상황

IV. 인도 사하란푸르 지역의 현재 이슈들

V. 샤이드 종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2. 샤이드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3. 샤이드 종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4. 샤이드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VI. 나가는 말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인도는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10/40창에 속한 국가로 세계에서 최다(最多)의 미전도 종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인도는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 반드시 돌파되어야 할 이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중국에 이어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이다.

11억 6천 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는 80.5%의 힌두교도, 13.4%의 이슬람교도, 1.9%의 시크교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독교인은 2.3%로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다.² 현재 인도는 전방개척지수가 F3으로 복음주의자 비율이 0-5%이고, 박해지역인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인도는 남인도의 복음화율은 약 7%, 북인도의 복음화율은 약 0.7%로 지역편차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이슬람교가 북인도 지역에 교세를 장악한 역사적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인도는 실제로 약 1억 3800만 명의 무슬림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무슬림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인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무슬림들은 인도 사회에서 비주류의 집단이며, 선교적 관점으로도 주류인 힌두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이다. 본 조사팀은 인도의 무슬림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하고 남은 과업 완성에 참여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지역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팀은 무슬림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인도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우타르프라데시 주(Uttar Pradesh State)에서 무슬림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사하란푸르 지역(Saharanpur District)의 샤이드(Sayyid)종족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종족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이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선교전략을 도출하여 본 종족뿐만 아니라 북인도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복음화를 꾀하고자 한다. 현장감 있는 조사를 통해 종족의 최신 정보를 보고하여 선교자원이 동원되며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로 알고 중보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² 인구수는 CIA의 2009 census, 종교 비율은 인도 정부의 2001년 census를 참고하였다.

2. 조사의 목적

- 1) UP주 사하란푸르 지역의 현황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이해한다.
- 2) 샤이드 종족의 현황 조사를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선교전략을 도출한다.
- 3) 사하란푸르 지역과 샤이드 종족을 보고하여 이들에게 복음 전할 사역자를 동원하고 최신 정보로 중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3. 조사지역

인도(India) 우타르프라데시 주(Uttar Pradesh State) 사하란푸르 지역(Saharanpur District)

4. 조사대상

샤이드(Sayyid)종족

5. 현장조사기간: 2009년 7월 3일 ~ 2009년 7월 22일³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07/03- 2009/07/05	뉴델리, 델리	델리시내	관찰조사
		코넛플레이스	
		빠하르간지	
2009/07/06- 2009/07/06	사하란푸르 지역	사하란푸르 지역 선교센터	인터뷰

³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9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2009/07/07- 2009/07/10	사하란푸르 지역	마자히르 울 울름 (Mazahir Ul Uloom) 이슬람 신학교, 다를 울름 데오반드 (Darul Uloom Deoband) 이슬람 신학교	인터뷰, 관찰조사
2009/07/11- 2009/07/14	사하란푸르 지역	짜이푸르	관찰조사, 인터뷰, 문헌조사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인도 현지 조사팀⁴ 4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이동석	상당사회복지학부(05)	디렉터, 예배부
2	배순종	글로벌리더십학부(09)	미디어부장
3	이은지	글로벌리더십학부(09)	총무부장
4	황순혁	기계제어공학부(04)	문서자료부장

2) 통역자 및 현지 가이드 3명

	이름	소속	역 할
1	Y 선교사	지구촌교회	동역 및 통역
2	K 선교사	지구촌교회	동역 및 통역
3	나즈빌	사하란푸르센터	동역 및 통역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⁴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9개 지역조사팀 중 IFR(Ind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리서치 전문가 과정(Research Expert Course)과 리서치단기선교사과정(Research Missionary Training Course)이 있다.

(1) 문헌 조사

논문-임진철, 2003, “인도 선교의 문제점 고찰과 바람직한 인도 선교 전략 연구” 외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 ① 다룰 울름 데오반드(Darul Uloom Deoband) 이슬람 신학교
- ② 마자히르 울 울름(Mazahir Ul Uloom) 이슬람 신학교
- ③ 사하란푸르 지역 내의 무슬림 마을

(2) 인터뷰

- ① 선교사 인터뷰
- ② 대학생 인터뷰
- ③ 현지인 인터뷰

(3) 문헌 조사

- ① 현지 신문 통한 이슈 조사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사하란푸르 지역 조사와 더불어 샤이드 종족을 실제로 만나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조사라는 의의가 있다. 특별히 샤이드 종족은 무슬림 사회에서 왕족혈통의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므로 이들의 복음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대하며 조사에 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조사팀은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샤이드 종족만이 가진 특수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의 역사를 통해 왕족혈통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생활양식 및 모든 상황이 사하란푸르 지역 내의 타 무슬림 종족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본 보고서가 샤이드 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을 다루고 있지만 샤이드 종족의 현황이라고 했을 때 사하란푸르 지역 내의 타 무슬림 종족의 현황이라고 보아도 무관함을 밝혀둔다. 따라서 샤이드 종족 조사를 통해 사하란푸르 지역과 이 곳에 사는 타 무슬림 종족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조사는 단기 리서치 사역으로 종족과 지역의 모든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조사는 이슬람의 세력에 강하게 묶여 있는 사하란푸르 지역을 선교적 관점으로 보고하였다는 점과 사하란푸르 지역과 샤이드 종족에 대한 최신 자료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는 성과를 가진다.

II. 들어가는 말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나라이다. 전세계 무슬림의 60%가 아시아권(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인도에는 약 1억 5천만 명의 무슬림이 존재한다.⁵ 힌두교는 전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종교이지만 이슬람교는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중동을 이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 무슬림들이 복음화 될 경우 동진(東進)하는 이슬람 세력에 대하여 복음의 교량 역할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인도 지역은 한국에서 선교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중동, 중국, 동남아시아 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선교자원 및 선교정보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한동대 국제지역연구소의 인도 리서치팀은 지난 3년간 조사해왔던 인도 최북단에 위치한 잠무&카쉬미르 주(Jammu&Kashmir State) 조사를 마치고 북인도지역의 또 다른 전략적인 지역인 우타르프라데시 주(Uttar Pradesh State, 이하 UP주)를 타겟으로 이 지역의 미전도 무슬림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지역연구를 하게 되었다.⁶

UP주는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의 영향력 있는 성지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이어지면서 갖가지 전통문화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UP주에 살고 있어 북인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UP주는 인도에서도 지리적으로, 문화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전략적인 의미를 가진 지역이므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다양한 조사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조사팀은 UP주의 샤이드(Sayyid) 종족의 현황 조사 및 선교전략 도출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팽창하는 무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도 무슬림 미전도 종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⁵ 선교타임즈, “인도권 무슬림에 대한 연구” 2009년 08월 14일자

⁶ IFR은 2002년 1기 인도의 복음화를 위한 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 여름-카쉬미르 지역, 2006년 여름-카쉬미르 지역, 겨울-잠무 지역, 2007년 여름-라다크 지역, 겨울-카쉬미르 지역을 조사하였다.

Ⅲ. 사이드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사하란푸르 지역(Saharanpur District)은 우타르프라데시 주(Uttar Pradesh State, 이하 UP주)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⁷ 사하란푸르라는 지명은 이슬람교의 성자 샤 하란 크리슈티(Sha Haran Chishti)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기원후 1340년경에 세워졌다. 델리 북쪽에서 약 150km 떨어진 갠지스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므로 교통이 편리하여 주변에서 생산되는 곡물, 면화 사탕수수 등이 모여든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생산되는 곡물이 전역으로 전해지는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Ⅲ-1〉 사하란푸르 지역 마을의 전경

그러나 3층 높이의 건물이 대다수인 소도시로 본 조사팀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UP주에서 발전된 도시인 뉴델리(New Delhi)와 러크나우(Lucknow)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발전 수준이 약 20년 이상 낙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체성

인도에서의 종족개념은 가정의 성씨(姓氏)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⁸ 인도에서 종족개념은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거나 그들만의 특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우리나라 김, 박, 이씨와 같은 성씨 개념으로 이 성(姓)을 통해 역사적으로 어떤 가문이었으며 한때 어떤 왕권을 잡았는지 알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인도에서 무슬림의 카스트(Caste)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신분이 높은 카스트로서 아쉬라프(Ashraf)라고 하는데 이들은 인도 현지인들이 아니라 외국의 이슬람

⁷ UP주는 인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주(州)로 총 70개의 디스트릭트를 가지고 있다.

⁸ 본 내용은 2009년 7월 14일 현지 Y 선교사(남, 40대, 기독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국가에서 인도에 정복하러 들어온 무슬림들의 자손들이다. 두 번째는 신분이 낮은 카스트로서 아즈라프 자트(Ajlaf Jat)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무슬림이 아니었던 인도 현지인들로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다.⁹

샤이드 종족은 이 중 신분이 높은 아쉬라프에 해당하며, 본 조사팀은 이들이 혈통으로나 계급적으로 매우 역사가 있으며 영향력을 미쳐온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Ⅲ-2〉 샤이드 종족의 모습

‘샤이드’라는 어원은 원래 노예의 주인을 말하였으며, 역사적으로는 특히 이슬람권에서의 귀족가문에 대한 칭호였다. 그와 함께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의 자손, 즉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Fatima)와 제4대 칼리프(Caliph)¹⁰인 알리(Ali) 사이에 태어난 자손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성질의 칭호 샤리프(Sharif)와 함께 널리 사용되었다¹¹. 자신의 출신을 이름에 표현하려

는 관념은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칭호는 이슬람권의 전역에 걸쳐 사용되었다. 인도의 사이이드(Sayyid)왕조라는 명칭도 그 시조인 히즈르 칸(Khiir khan)이 아프간 사람이면서 예언자의 자손이라고 자칭한 데서 비롯되었다.

본 조사팀은 샤이드 종족의 가족이름에 Shyyid, Shyyed라는 성(姓)이 이름에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이름을 통해 이 사람이 샤이드 종족 사람, 샤이드 가문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샤이드 종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었다. 파티마의 두 아들, 하산(Hasan)과 후세인(Hussain)의 자손들이 샤이드 집안의 뿌리이다. 이들은 후세인 직계 후손으로써 종교적 지도자, 이맘(Imam), 선생이 되어 이슬람을 인도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이 이슬람의 소명을 가진 샤이드 종족은 인도 전역에 분포 되어있으며 특별히 케랄라 주(Kerala State)에 많이 거주한다

본 조사팀은 인터뷰를 통해 이들 스스로가 전통 있는 샤이드 가문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무슬림들이 칼리프들의 추종 집단인데 반해 샤이드 종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기반

⁹ 아쉬라프와 아즈라프 자트 외에도 인도 무슬림에게 직업별로 분류된 카스트는 더 많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 내용은 김바울 선교사, “북인도 무슬림의 역사와 오늘”을 참고하였다.

¹⁰ 칼리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 이슬람 교리의 순수성과 간결성을 유지하고 종교를 수고하며 동시계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이슬람 제국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킨다.

¹¹ 네이버 사전, www.naver.co.kr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한 것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무굴(Mughul), 파탄(Pathan) 등 샤이드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에게 샤이드 종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다른 이들 또한 샤이드 가문에 대해 존경심을 나타내었고 그들이 매우 높은 계층임을 인정했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칼리프를 인정하고 따르는 순니 무슬림(Sunni Muslim)이라는 것이다. 파티마와 4대 칼리프 알리를 추종하는 무슬림을 시아 무슬림(Shia Muslim)이라고 부르는데, 샤이드 종족은 4대 칼리프 알리와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순니 무슬림이다. 이들의 순니 무슬림이라는 혈통은 무슬림의 다수가 차지하는 순니 무슬림에게도 이들이 인정을 받는 충분한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샤이드 종족은 대부분 왕가를 이루어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종교지도자, 선생의 역할을 하며 지냈고, 이러한 가문의 혈통은 인도로 넘어와서도 이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인도로 건너온 샤이드 종족은 이들이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도의 많은 왕들로부터 땅과 재물을 받고 대우를 받았다. 그리하여 샤이드 종족은 인도북부 지역에서 많은 지배력과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뷰 결과 델리의 자마마스지드의 60%이상의 종교지도자는 샤이드 종족임을 알 수 있었다.

3) 인구

UP주의 인구는 1억 6,605만 2,859명(2001)으로 인도의 주(州) 가운데서 가장 많으며, 인구밀도도 가장 높다. 그 중 사하란푸르 지역의 인구는 290만 명이며¹² 본 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샤이드 종족의 가정 수는 약 200가구 정도였으나 사하란푸르 지역에 거주하는 샤이드 종족의 정확한 인구 수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조사팀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한 가정당 자녀가 3명~ 6명 사이 가량이었다. 앞으로도 가정의 자녀수로 미루어보아 지속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본 조사팀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 마을에 아이들이 100여명이상 모여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과거 샤이드 종족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는 시점에 이슬람교가 주종교인 파키스탄으로 대부분이 이주하여갔다. 그 당시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샤이드 종족은 부유층이며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고, 지금 사하란푸르 지역을 비롯하여 인도에 남아있는 샤이드 종족은 이주하기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거나 인도에서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주를 꺼려했던 이들이 많다.

현재 사하란푸르 지역은 도시의 경제 사정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하란푸르 지역에는 연령대로 볼 때 아이들이 많고 그 다음 마을에 터를 잡고 있는 장년층이 많으며 청년 비율을 상대적으로 적은 편

¹² 인도 정부의 2001년 census참고를 참고하였다.

이다.

4) 지리

UP주는 인도 북부에 위치하며 갠지스 강 중상류 유역에 위치하며 인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우타르프라데시라는 이름은 북쪽 나라라는 뜻을 지닌다. 북쪽은 네팔 및 티베트와 접하며 서쪽은 하리아나 주(Haryana State) 및 델리 연방직할 주(Union Territory of Delhi), 남서쪽은 라자스탄 주(Rajasthan State), 남쪽은 마디아프라데시 주(Madhya Pradesh State), 동쪽은 비하르 주(Bihar State)와 경계를 이루어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철도와 도로 또한 교차하는 위치에 있어 각 지역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

5) 역사

인도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712년 옴미아드(Ommiad) 왕조의 무함마드가 원정군을 이끌고 인더스 강 유역의 신드(Sind) 지방에 침입하면서부터이다. 이들 세력은 9세기 아바스(Abbas) 왕조의 쇠약으로 사실상 독립된 이슬람 세력으로 남아 이후 10세기 말부터 인도는 본격적으로 이슬람화되었다. 당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Truks) 족이 세운 가즈니(Ghazni) 왕조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에 중심을 두고 펀자브(Punjab) 지방까지 그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약탈과 파괴로 일관하여 종교, 문화적 영향은 미미하였다. 12세기 중엽 가즈니 왕조가 쇠퇴한 틈을 타 아프간인이 세운 고르(Ghor) 왕조가 일어나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였다. 이들은 인도의 이슬람화를 계획하여 펀자브 지방을 점령하고, 인도의 중심부 델리에 진출하여 북인도 전역을 이슬람 세력권에 넣는데 성공하였다.

13세기 초 델리 지방을 맡아 통치하던 고르의 지방관인 쿠티브 우딘 아이바크(Qutb-uh-din Aibak)는 독립하여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를 세웠다. 델리의 이슬람 왕조의 왕 가운데는 노예 출신이 많아 노예 왕조(파탄 왕조)라고 부르며, 이때 기존의 힌두교를 위협하며 계획적인 이슬람화가 추진되었고 이슬람 사원의 건축 등으로 이슬람 문화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후 무굴 제국의 성립까지 약 3세기 동안 인도에서는 많은 이슬람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였다.

1398년 티무르(Timur)가 이란 지방에서 일어나 인도를 침략하여 잠시 사이이드 왕조를 세웠으나, 곧 아프간 인의 로디(Lodi) 왕조에 망하였다. 이 침략을 계기로 델리의 이슬람 왕조가 약화되어 인도는 다시 소왕국 난립의 혼란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아프간에서 넘어온 많은 이들이 북인도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들은 사이드 종족을 이루어

지금까지 인도 북부지방에 살고 있다.

6) 요약

UP주의 사하란푸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샤이드 종족은 인정받는 혈통을 가진 무슬림 가문으로 순니파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무슬림 종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사하란푸르 지역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계급보다 경제력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처해 있다. 샤이드 종족의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조건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타지로 이주해 나가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타지로 이주해 나간 청년들이 이들의 혈통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을 지켜 나가는지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인도에서 샤이드 종족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당분간은 이들의 전통과 관습이 계승될 것으로 보인다.

샤이드 종족의 사회적인 위치나 타 종족과의 관계를 볼 때, 이들이 무슬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경우 무슬림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치분야

1) 개요

2009년 5월 16일 인도 총선이 막을 내렸다. 7억 1,400만 여명의 인도 유권자의 수는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유권자수의 5.5배에 달한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직접선거를 동시에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인도 총선이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의 선거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네루 이후 최초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가 5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재선에 당선되었다. 싱 총리는 네루-간디 가문¹³으로, 이번 결과는 간디 가문의 부활과 대중적 지도력을 재확인하였다. UP주의 총리이자 불가촉천민

¹³ 인도 정치에서 네루-간디 가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명의 총리를 배출하며 37년간 인도를 통치하였다. 자와할랄 네루(1947-64), 인디라 간디(1966-77, 80-84), 라지브 간디(1984-89) 순서로 총리직을 이어갔다.

(Untouchable people)¹⁴ 출신의 유력한 여성 정치인 쿠마리 마야와티(Kumari Mayawati)¹⁵도 총선에 도전했지만 패배하게 되었다. 싱 총리의 당선으로 인해 인도의 정치는 안정이 되고 경제성장 노선은 더욱 힘을 받으며 범민족주의 노선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정치·행정 구조

연방공화국인 인도는 7개의 연방 직할지와 2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연방정부와 이들 주정부 간의 역할 분담에 의해 국정이 운영된다.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 실행, 되어야 할 여러 사항들, 즉 국방, 외무, 교통·통신, 화폐, 고등법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그 외 경찰, 교육, 임산자원관리 등 지방 업무의 성격을 띤 분야는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인도의 행정부는 대통령·부통령·국무위원회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대신 정치적 실권은 내각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상하양원과 각 주의 주 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은 35세 이상의 인도 시민이어야 하며 하원의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임기는 5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다. 부통령은 상하양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상원의장을 겸한다. 실질적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위원회는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로 구성된다. 연방의회는 상원(라자사바)과 하원(로크사바)으로 나누어지는데, 하원은 각 주의 각 선거구마다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530명 이내의 국회의원과 연방 직할 주를 대표하는 20명 이내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 임기는 회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상원은 25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그 중 1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하원의원이 선출하는 간접선거 형식을 취한다. 상원은 해산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성원의 1/3씩을 교체한다.

주(州)정부의 형태는 연방정부와 매우 흡사하다. 주정부는 대통령이 5년 임기로 임명한 주지사 및 주(州)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주(州)국무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주(州)마다 입법부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州)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몇몇 주(州)에서

¹⁴ 4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으로 나누어진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않은 최하층민을 의미한다. 총인구의 15%가 이에 해당하며, 가장 어렵고 힘든 직업을 맡고 있으며 엄격한 차별을 받는 중에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조항들이 법제화되고 있는 중이다.

¹⁵ 마야와티는 2008년 7월 집권 국민회의당의 만모한 싱(Singh)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2009년 5월로 예정된 인도 총선에서 집권연정인 UPA(통합진보연합)의 소니아 간디 의장과 맞서는 최대 주목 인물로 떠올랐다. 당시 마야와티는 인도·미국 간 핵 협정 체결을 반대하며, 자신이 이끄는 BSP(대중사회당)을 비롯한 9개 군소 정당을 하나로 묶어 '제3전선'이란 정치세력을 형성, 싱 총리를 '불신임' 가결 직전까지 몰고 가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의 정당들은 총선 시 여러 주에서 후보를 낸 후 경합을 벌여 전국적으로 4%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만 다음 총선에서도 여러 주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인가를 받는다.¹⁶

UP주의 상원의원은 31명으로 인도에서 상원의원의 수가 가장 많으며 하원 의원의 수 또한 80명으로 가장 수가 월등하게 많아 인도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주 안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주지사에 의하여 수반되며 행정적인 권력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 각 부서별로 각료회의가 존재하는데 이 각료회의에 속한 사람들은 내각장관, 차관, 차관보가 있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5년이다.

지방조직에서 지역 의원은 각각의 지역을 관할하며 그 아래에 부의원이 있으며 또한 그 아래에는 Thesil Dar라고 하는 일종의 행정장관이 있어 250여 개의 마을의 행정 업무를 맡는다. 그 아래에는 Block Development officer가 있는데 이 사람은 20~50여 개의 마을을 관할하며, 그 아래에 뽀짜얏(panchayat)¹⁷은 5~10여 개의 마을을 관할한다. 정부가 뽀짜얏에 개입하여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후원을 하므로 뽀짜얏은 이도 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UP주는 뽀짜얏이 없는 지역도 많아 힌두교식의 행정구조가 보편화되지 않았다. 또한 Mukdam 또는 Numberdar라고 하는 촌장이 마을마다 존재한다. 이들 지방조직의 대표들은 60세에 은퇴하게 되는데 이는 주정부 각료들의 임기가 5년인 것에 비해서 대조적이다.

사하란푸르 지역은 활발한 정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도 독립 이후 여러 해 동안 사하란푸르 지역은 콩그레스 당(Congress Party)에 의해 통치되어 불가촉천민들은 구잘(Gurjars)과 같은 지배 집단에 의해 잔인하게 고통 당했다. 그러나 현재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불가촉천민의 주장은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다. 많은 불가촉천민 조직이 사하란푸르 지역에 있으며,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조직은 DAG(Dynamic Action Group)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불가촉천민들은 교육과 학교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사하란푸르 지역에서는 계급이 낮은 정치인들이 활발히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불가촉천민들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는데, BSP당(Bahujan Samaj Party)을 설립한 칸시람(Kanshiram)은 사하란푸르 지역 하원의원 선거에서 경합을 하기도 했었다. 그의 후임자가 UP주의 주(州)총리로 유명한 쿠마리 마야와티로 그녀 역시 사하란푸르 지역 불가촉천민 출신이다.

3) 사법

¹⁶ 네이트 사전, www.nate.com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¹⁷ 뽀짜얏은 인도의 선거 선출제 마을 의회로 남성들로만 구성되며 주로 자띠(Jati)라고 불리는 카스트 단위로 이루어져있다.

인도의 헌법은 1950년 1월 26일 발효되었다. 사법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3심제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Supreme court,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High court,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District court가 존재한다. 대법원은 인도의 수도인 델리에만 존재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24명의 대법원장이 이에 속한다. 대법원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대법원의 법률은 1966년에 145개의 항목으로 만들어졌다.¹⁸ 고등법원은 전국에 18개가 존재하고 있다.

UP주에는 알라하바드(Allahabad) 지역에 존재하는 고등법원이 사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렉나우 지역에 또 하나의 고등법원으로 파생되어 업무가 분담되었다. UP주의 지방법원은 총 71개가 존재하며 지방법원 아래에 Civil Court가 있는 지역도 존재한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는 까닭에 영국의 사법체계와 흡사한 인도의 사법 구조에 과거에는 배심원 제도가 존재하였지만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UP주에는 Uttar Pradesh Vidhan Parishad, Uttar Pradesh Vidhan Sabha라는 2개의 입법기관(Assembly)¹⁹이 존재한다. 이 조직의 의원을 M.L.A(Member of Legislative Assembly)라 부르며 UP주에는 404명의 M.L.A가 있으며 M.L.C(Members of Legislative Council)은 100명이 존재한다.

4) 치안

각 주정부는 주 내무부 관할 아래 경찰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앙에서 연방 정부의 내무장관이 중앙정보국, 중앙조사국, 중앙수사관양성소, 중앙법과학연구소, 중앙지문연구소, 사르다르발라브바이바텔 전국 경찰 아카데미 등 전국 규모의 여러 기관들을 관장하면서 조정기능을 담당한다. 인도의 경찰은 부정부패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뇌물, 정치세력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강패세력이 많이 있다. 경찰들은 대부분 즉결심판을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뺨을 맞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작은 거짓말 등을 할 뿐 도둑질, 성폭력 등의 범죄는 드문 편이다.

각 군은 자원 입대병만으로 구성되며 전문적으로 훈련된 장교군단이 이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인도군(軍)은 전통적으로 국내 정치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군대가 주도된 쿠데타도 발생한 적이 없다.²⁰

¹⁸ 인도 대법원, www.supremecourtindia.nic.in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¹⁹ 인도 UP주 웹사이트, www.upgov.nic.in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²⁰ 네이트 사전, www.nate.com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무슬림 지역에는 경찰력이 거의 없는 편이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힌두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경찰들 또한 그 곳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슬람 법에 따라 자치적으로 생활한다. 지역에 따라서 사병이 점령하여 치안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손길이 아예 닿지 않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 별로 자기 공동체를 만들어 그 규칙에 따라 생활한다.



〈그림 Ⅲ-3〉 사하란푸르 지역 경찰 주둔 모습

5) 요약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 그러나 일반적인 인도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정치인들은 캄패 출신이 많으며, 주민들을 위한 통치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비리를 저지른다. 총선이 있는 날에는 테러가 일어날 위험 때문에 핸드폰도 두절되고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명목만 가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민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 정치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인도가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것이다. 정치가 특정 집단의 유익을 위하는 부패한 인도에서 다수의 하위층을 대변하는 불가촉천민 출신의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하위계급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인도 위정자들의 관심이 소외 받는 자국민들에게로 고정되어 인도에 많은 선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 소외 받는 하층계급까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3. 사회분야

1) 개요

인도 사회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카스트 제도(Caste system)²¹는 사회의 전반적인

²¹ 네 가지의 카스트인 브라만(Brahman: 사제자), 크샤트리아(Kshatrya: 무사), 바이샤(Vaisya: 농민·상인 등의 서민), 수드라(Sudra: 노예)의 밑에 달릿(Dalit) 또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라는 가장 낮은 하위계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카스트는 힌두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체계이다. 카스트 제도는 과거의 역사와 함께 이어온 지배세력의 지배체제 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었고 인도인들의 생활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깊숙이 스며 들어갔다. 카스트 계급에 따른 차별이 법적으로는 없어졌으나 생활 부분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인도인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인도에서 무슬림은 소외 받는 계층으로 대우받고 있다. 무슬림에 의한 국가적인 내전이나 여러 분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형성된 힌두 정부의 보이지 않는 차별은 무슬림들의 가난과 낙후된 사회 시설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본 조사팀은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과 힌두인들이 사는 지역의 빈부격차가 심한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2) 여성의 역할

인도 여성이 대부분 그러하듯 사이드 종족 역시 일반적으로 여성은 식사준비, 청소, 아이들 돌보기 등 집안일을 담당하고 남성은 집 밖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인도는 시대가 점점 바뀌어 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93년에는 여성이 처음으로 군대에 들어갔고, 현재 의회 의석의 약 10%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시골 마을 여성들은 상황을 개선하기가 더 힘들지만 SEWA²²와 같은 단체는 여성들도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이드 종족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3) 가족구조

사이드 종족은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한 마을에 2~3가정이 친척끼리 함께 살고 지역 전반적으로 흩어져서 산다. 한 가정은 대가족 형태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3~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마을에서 사는 다른 종족들은 높은 계층의 사이드 종족을 존경하고



〈그림 Ⅲ-4〉 대가족으로 모인 사이드 종족과 조사팀

층이 존재한다.

²² 자영업 여성협회(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로 경제활동의 변방에 속하는 하위 카스트의 여성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사업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구즈라트 주의 아허머다바드(Ahmedabad) 지역에 존재한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4) 요약

인도 사회에서 무슬림은 다수의 힌두교에 의해 정부적 차원에서 차별 받는 계층이다. 내전과 갈등의 역사로 인해 무슬림들은 인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되었다. 또한 인도 무슬림은 선교적으로도 힌두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에서 여성들 역시 남성과 같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도 무슬림 여성들은 이슬람 법과 관습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며 여러가지 불평등을 겪어야만 한다.

이러한 불평등 속에서도 공평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인도를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겨진다. 카스트라는 사회 계층적 차별이 있는 인도에서 무슬림, 여성이라는 신분은 또 한번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버리지만, 복음이 이들에게 전파되어 사이드 종족뿐만 아니라 온 인도의 영혼들이 진리와 함께 자유케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4. 경제분야

1) 개요

BRICs 국가²³ 중 하나인 인도는 세계경제의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이며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이루어낸 1/4분기 실적호조는 최근 종료된 인도총선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로 만만한 싱 총리의 대외 경제 개방의 지속 정책 등에 의해 경제성장의 밝은 미래가 예상된다.

소도시인 사하란푸르 지역의 사람들은 사탕수수 재배와 같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목공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본 조사팀은 도시 중심부나 외곽지역에서도 가구를 만들고 나무를 가공하는 크고 작은 가게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래에 들어서는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들에 밀려 목공업 종사자의 수가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도시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많은 청년들이 주변 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²³ 2000년대를 전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4국이 이에 해당한다.

2) 산업구조

UP주는 타즈마할(Taj Mahal)과 아그라(Agra) 등 유명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이로 인해 여행과 관광, 호텔 업계, 부동산, 보험, 금융 등의 3차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있다. 관광산업을 제외하곤 서부의 평야지방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농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노동력의 약 3/4가 종사하며, 순 수입의 3/4를 담당한다. 공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들 가운데 소수만이 공업에 종사하는데, 그것도 대부분은 가내수공업 정도이다.

UP주의 도로 중 1/5은 비포장이고, 철도망도 선로간의 길이가 달라 도로수송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의 풍부한 삼림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UP주는 항공편과 갠지스(Ganges) 강, 야무나(Yamuna) 강, 가라 강 등 3개의 주요 수로들이 많은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²⁴

사하란푸르 지역은 충분한 광물자원이 없기 때문에 농업과 목공업이 발달했다. 특히 사탕수수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설탕 산업이 발달했다. 또한 품질이 좋은 목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쿠웨이트, 스웨덴,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 산업의 원료로 수출되고 있다.²⁵ 사하란푸르 지역의 목재는 전통적으로 북쪽 언덕의 많은 삼림지역에서 공급되어 왔으며 채벌된 목재들은 목재 산업과 별장산업 및 다른 산업에 공급된다. 또한 조각기술도 발달하였는데 본 조사팀은 시장에 목공예품 전문점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주민 수입의 절반이 나무 공예 산업이며 아름답고 실용적인 목공예품들은 거대한 시장을 이루어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샤이드 종족은 후세인의 직계 후손이라는 혈통의 영향으로 종교관련 직업, 선생, 이맘 등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의 직업을 많이 갖는다. 50년 전 만해도 인도의 종교 지도자의 80%는 샤이드 종족이었을 만큼 그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는 종교지도자의 비율이 45%정도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텔리의 주요 모스크의 이맘은 샤이드 종족이 담당하고 있다.

3) 발전수준

인도의 경제발전 수준은 인도인들의 생활상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한가지 예로 인도의 전신주 전선에는 피복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전기세를 낼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피복이 되어있지 않은 전선에 선을 하나 걸쳐서 전기를 사용한다. 정부에서도

²⁴ 네이트 사전, www.nate.com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²⁵ India social 웹사이트, www.saharanpurcluster.org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공무원이 있다. 그러나 이 공무원들은 이러한 가정에 찾아가 자신의 돈을 챙기고 이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가 생활화된 인도에서 해외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잘 적응하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70~80년대 경제성장의 경험으로 인도 시장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²⁶

사하란푸르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본 조사팀은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우리나라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체류하는 기간 동안 낙후된 도로와 배수 상태, 마을 곳곳의 쓰레기 더미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사하란푸르 지역의 어두운 경제 전망 속에서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은 UP주의 주(州)총리인 쿠마리 마야와티가 사하란푸르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로 인해 사하란푸르 지역이 발전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4) 주요산품

UP주는 수공업이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러크나우(Lucknow)는 자수의 한 형식인 치칸(chikan)으로 특히 유명하며, 모라다바드(Moradabad)는 금속 에나멜 세공, 바라나시(Varanasi)는 양단과 돛쇠제품, 나기나는 흑단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은 목공업품이 주요산품으로 손꼽히며 그 밖에 석탄, 철, 시멘트, 소금, 석유 제품, 화학 비료, 씨앗, 가죽 등도 주요 수출 품목이다.²⁷

5) 요약

인도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사하란푸르는 경제적 발전이 더딘 지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업과 함께 목공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최근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에게 밀려 차츰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도시의 일자리 부족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들도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낙후된 이들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외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²⁶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일본의 미쓰비시(Mitsubishi)기업이 최초로 들어와 소형차를 히트시키면서 인도 외제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뒤이어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오면서 인도의 소형차 시장이 더욱 크게 발달하였다. 인도 국산 자동차 시장은 타타(TATA)기업이 거의 독점을 하면서 일본, 한국, 인도 기업의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다.

²⁷ India social 웹사이트, www.saharanpurcluster.org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있으므로 젊은층이 빠져나간 사하란푸르 지역이 시대인식과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스스로 삶의 개선의지를 가지고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인 개선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5. 생활분야

1) 개요

인도는 넓은 그들의 영토와 많은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종교와 종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특별히 카스트제도는 인도인의 전반적인 생활분야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은 무슬림의 거주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들의 생활은 무슬림의 생활과 동일하다. 샤이드 종족 역시 무슬림 종족으로 인도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슬림 생활상을 따른다. 하지만 인도 이슬람이 수피 이슬람이므로 정통 무슬림과는 달리 인도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식생활

힌두교도들은 소를 우상으로 여겨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한, 힌두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다른 종교도 힌두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를 암묵적으로 피하는 실정이다.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는 힌두에서 신성시 여겨지는 소와는 달리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힌두교와 무슬림 전체에서 이에 대한 취식을 피하고 있다. 돼지고기에 대한 취식은 그들 자신의 계급을 낮추는 것이며 이를 먹는 것 자체를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무슬림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과의 식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음식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을 수 있으며 이슬람식으로 잡지 않은 육고기 취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에 따라서 식생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도 그들의 식생활에 차이를 보인다. 높은 카스트 계급일수록 채식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편이며,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식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낮은 계급에 갈수록 비채식주의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무슬림들의 식생활은 소와 돼지를 먹지 않는 것이나 집이나 거리에서 자주 짜이를 즐겨 마시는 모습 등 인도의 식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의복

인도 여성의 경우에는 전통의상 사리(Sari)²⁸를 주로 입는다. 인도의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 착용하고 있으며 이는 5~6야드의 사각형 조각의 실크가 주로 그 원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 의복의 착용형태는 여성의 우아함을 기본으로 할 뿐만 아니라, 연령, 직업, 지역, 여성의 종교에 따라서 그 착용법이 달라 지는 특색을 지닌다.



〈그림 Ⅲ-5〉 전통의상을 입은 사하란푸르 여성들

이와 함께 살와 카미즈(Salwar kameez)²⁹나 쿠르타(Kurta)³⁰와 같은 전통 의상을 착용 하기도 한다. 본 조사팀이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이와 같은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무슬림 여성들은 무슬림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얼굴까지도 가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들은 귀걸이와 팔찌와 같은 악세서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통의상 보다는 현대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전통의상으로는 도티(Dhoti)³¹나 런지(Lungi)를 착용하고 있었다.

4) 주거

본 조사팀은 수도 텔리에서 현재 도시 전체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빌딩이 들어서고 있으며 주거 형태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과거의 벽돌과 흙으로 지어져 있던 집들을 대신해 나가고 있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빈부격차는 주거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한편에서는 수영장을 갖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나무를 세우고 위에 천막을 덮은 채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반 주택의 경우 흙과 벽돌을 재료로 하고 있다. 시멘트를 사용하여 벽돌을 쌓고 바닥의 경우에는 대리석을 까는 곳이 많으며 가난한 경우에는 흙 바닥을 그대로 사용하

²⁸ 허리와 어깨를 감고 남은 부분으로 머리를 싸는 무명이나 명주 천이다.

²⁹ 남아시아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입는 전통적인 의상으로, 바지는 위쪽은 통이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며, 상의는 긴 셔츠와 튜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이 즐겨 입지만, 여전히 몇몇 남성들에게 입혀지고 있다.

³⁰ 기장이 길고 칼라가 없는 인도의 셔츠를 말한다.

³¹ 다리 사이에 두르거나 치마처럼 헐렁하게 입는 수수한 겉옷을 말한다.

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한다.

본 조사팀이 방문한 사하란푸르 지역의 한 무슬림 동네의 경우에는 집과 외양간이 함께 붙어 있는 집 형태를 주로 하고 있어 사람과 가축이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흙 바닥 위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집의 담도 벽돌과 흙을 재료로 하고 있었고 훼손되고 무너진 집들이 많이 있었다. 도로 주변으로는 극빈층의 사람들이 긴 나무를 세워 만든 천막에서 살고 있는



〈그림 Ⅲ-6〉 천막을 치고 사는 극빈층의 무슬림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하란푸르 지역이라고 해도 힌두인들이 사는 곳은 주로 2층으로 된 집으로 대리석 바닥이 깔린 잘 정돈된 주거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쉼을 얻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5) 위생의료

인도 전체적으로 곳곳에 약품을 파는 곳이나 병원 간판을 걸고 있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규모가 큰 병원도 도시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낙후된 의료 수준으로 인해 대부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UP 주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잦은데, 이와 같이 태아와 산모의 사망으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6) 환경과 물

인도의 위생상태는 많은 부분에서 낙후되어 있다. 최근 WHO와 UNICEF의 합동 연구에 의하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노상에서 볼 일을 보는 비율의 50%에 달하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은 곧 그들의 위생, 의료 상태와 연관되어서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도시 전체를 더럽히고 있었다. 그리고 길 좌우로 노출되어 있는 하수도 시설은 인도의 위생상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었다. 오수가 흘러가며 발생하는 악취와 바퀴벌레나 쥐와 같은 여러 해충들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도시

전체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그림 Ⅲ-7〉 쓰레기로 뒤 덮인 사하란푸르 지역

여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날씨도 최근의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함께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몬순기후의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올해 여름 인도는 비가 오는 시기가 늦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인도의 경우 지하수를 생활용수 및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는 석회가 많이 섞여 있고 수질이 그리 깨끗한 편은 아니다.

7) 교통³²



〈그림 Ⅲ-8〉 사하란푸르 지역의 철로

인도의 전역에 걸친 교통시설은 인도의 거대한 영토에 맞게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도의 교통의 핵심은 영국식민 시대 때부터 형성된 철도라 할 수 있다. 인도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통해 광활한 인도 곳곳을 이동할 수 있으며, UP주와 사하란푸르 지역 역시 철도가 잘 연결되어 있다.

또 다른 수단인 항공편은 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장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UP주에는 아그라(Agra), 칸푸르(Kanpur), 럭나우(Lucknow), 바라나시(Varanasi) 4개 지역에 주요공항이 있으며 그 외에도 23개의 소규모 공항을 가지고 있다. 네 개의 도시는 국내의 다른

³² 인도관광청, www.incredibleindia.co.kr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공항들과 잘 연결되어 있다.

도로 사정이나 버스의 상태가 기차 보다 불편하지만, 배차 간격이 잦고 이용이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들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어 있는데, 이는 부패한 정부에서 도로 포장에 사용될 돈을 전혀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밖에 세발 좌석 자전거인 사이클 릭샤(cycle rickshaws), 스쿠터 또는 오토 라고도 불리는 오토릭샤(auto rickshaws)와 오토릭샤보다 덩치가 큰 템포(tempo), 말이 끄는 마차인 통가(tonga) 등도 인도 교통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에는 사이클 릭샤가 도시 전체의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의 생계수단이 되기도 하는 사이클 릭샤는 좁은 도시에 맞게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고 있다. 템포는 비교적 긴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이용되는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하루 정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8) 대중매체 보급률

인도에는 영어로 된 일간지 및 여러 언어로 된 신문과 잡지가 다양하다. 영자신문과 함께 비즈니스와 경제 분석에 집중을 둔 신문 등 인도의 빠른 경제 성장에 맞춘 신문이 보급되고 있다. 북인도의 경우 대부분이 힌디어를 사용하므로 힌디어로 쓰여진 신문이 발간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인터뷰, 음악, 스포츠, 뉴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도 전역에 수신되고 있다. 사설 채널들이 늘어 나면서 다양한 뉴스와 서양 음악, 청취자 참여 토크쇼, 연예인 인터뷰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팀은 템포나 버스를 이용할 경우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델리나 주요 도시들에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을 도시 어디에서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이에 비해 도시 계발 속도가 느린 북인도 사하란푸르 지역은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PC방과 같은 시설이 중심지의 몇 군데에 불과하다. 시간당 한화로 600원 정도를 내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에서도 힌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9) 요약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인도사회에서 이들의 생활상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국가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에서는

낙후된 모습들이 자주 발견된다. 특히 사하란푸르 지역에는 주거지와 환경과 물, 위생의 료 부분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인도 사회는 개발에 집중하여 개발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과 경제발전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 UP주의 주요 4도시 경우 교통 시설에서부터 의료, 대중매체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하란푸르 지역의 경우 교통을 제외한 의료, 대중매체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적으로 복음이 가져다 줄 풍요함과 자유함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육체적인 필요 또한 채워져야 할 부분임을 깨닫고 이들의 영육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사하란푸르 지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6. 문화분야

1) 개요

인도의 문화는 과거의 베다 문화로부터, 불교문화, 이슬람문화의 영향을 거쳐 250년 동안 영국 지배 하에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 날까지 이르고 있다. 인도 문화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가 인도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무슬림의 경우 중동 및 타지역의 무슬림 종족들이 인도로 유입되어 정착하게 되면서 전통 무슬림이 현지 힌두의 문화와 접목된 형태로 변형된 사례가 많다. 결혼 문화의 경우 힌두 문화권에서는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축제처럼 결혼식을 즐긴다. 인도로 유입된 무슬림은 힌두의 시끄러운 음악이나 축제 같은 분위기만을 제외한 인도 결혼 문화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인도 무슬림은 인도에서 그들만의 문화적 형태에 힌두문화의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은 같은 종교와 언어로 마을을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이드 종족만의 축제, 모임, 관습 등은 없고 각 마을내의 축제, 관습, 모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예술

(1) 춤

인도의 오랜 역사와 춤은 인도인의 삶과 함께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인도의 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예술 형식의 하나로, 생활 속에서의 신화, 고전 문학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전춤과 민속춤 두 종류로 구분된다. 고전춤은 기본적으로 인도 내에서 잘 정리된 전통적인 규범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하는 춤으로는 버릿나(Bharata Natyam), 꺼터걸리(Kathakali), 꺼탁(Kathak), 머니뿌리(Manipuri), 오디씨(Odissi)가 이에 속한다.

(2) 음악

인도의 전통음악의 뿌리는 과거의 웨딕시대로 리그베다(Rig-Veda)라는 전집에서 묶여 나온 성직자가 읊던 종교적인 시와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다. 수 천 년에 걸쳐서 인도의 음악은 시대별로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남인도의 전형적인 양식인 꺼르나(Carnatic)과 북인도의 전형적인 양식인 힌두스파니(Hindustani)가 있다. 두 음악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같은 한 뿌리로부터 시작된 음악으로 많은 부분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라가(Raga)라고 하는 음악의 멜로디 형식과 탈라(Tala)이라고 하는 비트 수에 따라 형성되는 리듬을 쓰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작곡 및 즉흥 연주의 기초로 쓰여 진다.

이러한 음악형식과 함께 인도의 잘 알려진 인도 악기 중 하나는 독주자가 라가(Raga)를 연주할 때 사용하는 씨파르(Sitar)라는 큰 현악기와 싸렁기(Saranggi)라는 활을 이용하여 연주하는 악기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에 떠블라(Tabla)라고 하는 쌍둥이 북을 주로 박자는 맞추는 용도로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3) 문학

인도의 다양한 언어나 종교만큼이나 그 문학에도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특히, 인도 자국어로 쓰여진 작품은 그 작품성과 함께 그 자체로 인도의 중요한 문화 유산으로 여겨진다.

3) 축제오락

(1) 축제

인도의 공휴일과 축제는 대부분 매년 날짜가 바뀐다. 이는 인도 음력이나 이슬람교 달력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도의 많은 축제는 전통적으로 길일로 여겨지는 뿌르니마(Purnima)라 불리는 보름에 지내는 것이 많다. 각 시기별, 각 지역별로 다양한 특별 행사와 공휴일을 가지며 특히 결혼시즌에 해당하는 11월과 3월은 길일이 몰려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길에서 결혼행렬이 흔히 이루어지고 노래, 춤, 시끄러운 악단이 어우러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찌이뜨리(Chaitra)라고 불리는 3월, 4월의 신년의 행사를 시작으로 팔군(Phalguna)이라 불리는 2월, 3월의 행사까지 각 시기별로 다양한 국가적인 행사와 지역적 행사가 그 지역의 종족과 종교에 맞게 다양하다. 특히 주요 국가 행사로는 5월, 6월은 밀라드-운-너비(Milad-un-Nabi)라 불리는 무함마드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슬람 축제가 있다. 8월, 9월을 의미하는 버드러(Bhadra)에는 8월 15일인 인도의 독립을 기념하는 공휴일이 있다.

UP주의 주요 행사로는 팔군(Phalguna)이라 불리는 2월 축제와 홀리(Holi)라 불리는 3월 축제가 있다. 이는 남녀가 물감을 탄 물과 굴랄(Gulal)을 서로에게 던지며 겨울의 끝을 즐기는 행사로 힌두교 축제 중 가장 요란한 행사로 행해진다. “좋은 옷은 입지 말고, 머리를 숙여 피할 준비를 하라”는 말이 잘 나타내 주듯 색색의 분말을 서로에게 덮어 씌어 주며 질병을 예방하고 복이 함께 하기를 빌어 주는 것이다. 머투라(Mathura) 근처 버르싸나(Bursana)에서는 행사의 일부로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막대기로 때리며 행사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주의 여러 도시들은 도시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도시만의 종교적인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린다. 힌두교를 비롯한 이슬람, 시크교 등 각자의 종교의 주요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진다. 특히, 춤과 음악을 즐기는 인도인의 특성에 맞게 축제 대부분이 춤과 음악이 함께 하며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2) 크리켓

인도사람 대부분이 크리켓이라 불리는 운동을 즐긴다. 도시 곳곳의 공터나 공간적 여유가 허락되는 곳이라면 삼삼오오 사람들이 한데 모여 크리켓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또한 그 숫자가 만만치 않다. TV의 채널에서는 크리켓 경기가 중계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시청할 수 있다. 크리켓을 소재로 한 TV 영상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조사팀은 실제로 사하란푸르 지역의 곳곳에서 크리켓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남자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크리켓을 즐겼다.

4) 결혼, 장례, 출산³³

(1) 결혼

인도의 다양한 종교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의 결혼을 치르는 방법이 인도에서

³³ Singh, Sarina 저, 『론리플래닛 인도』, 안그라픽스출판

행해지고 있다. 수많은 종교에 맞는 각기 다른 방법들이 각 지역의 특색과 어우러지며 하나의 문화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힌두교가 지배적인 인도에서 썸쓰까라(Samskara)라 불리는 전통 통과 의례 의식이 수세기를 거치며 간단해 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요시 되고 있다. 대부분의 힌두 결혼식은 중매 결혼인데 현대 사회에 들면서 연애 결혼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무슬림의 경우에는 힌두사회와 그 특색이 섞이면서 그들만의 또 다른 결혼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의 샤이드 종족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집안이 우수한 집안이라는 점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이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으며 무슬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결혼한 후 여자는 남자의 성(姓)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의 성(姓)으로 명칭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성(姓)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 무슬림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허락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고 부모님이 정해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 원래 인도에 살고 있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의 결혼식은 힌두교 의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랍으로부터 인도지역으로 이주한 아랍 무슬림의 경우 힌두의식을 지키지 않는다. 샤이드 종족은 아랍 무슬림으로 카스트 제도와 힌두교 결혼의식을 따르지 않고 청렴결백이라는 샤이드 종족의 정신을 따라 검소하게 결혼식을 거행한다. 4명의 남자가 증인이 되면 결혼으로 인정이 되고 5~6명이 결혼식 후 식사하고 식이 끝난다고 한다.

특별히 샤이드 종족은 시아파와 순니파가 보통 대립관계인데 유일하게 샤이드 종족 내에서 시아파와 순니파 간에는 갈등이 없고 결혼도 한다. 시아파와 순니파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샤이드 종족은 자신의 종족을 파에 구분 없이 보호한다.

이혼은 샤이드 종족도 다른 무슬림과 같이 남자가 3번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한다. 이혼 후에는 3달 10일 동안 여자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 이후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반면에 여자는 이혼을 원하여도 할 수 없는 여성의 차별이 남아있다.

(2) 장례

인도의 힌두교의 장례는 대부분이 화장이다. 이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정화하고 위로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스라드(Sharadda)라 하는 조상들에 대한 떡과 물을 바치며 존경을 표하는 행위가 주요 중요 절차 중 하나로 매년 제삿날이 되면 이와 같은 행사를 치른다. 화장 재를 모아 두었다가 13일 후 의식적으로 혈족들이 정화되면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는 주변의 강이나 바다에 가서 뿌린다.

무슬림의 장례는 땅에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례 절차는 이슬람교의 방식을 따른다.

(3) 출산

출생 또한 특별한 의식을 각 종교나, 종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 중대한 행사이다. 힌두교 의식으로는 아이의 첫 운세 보기, 이름 짓기, 처음으로 딱딱한 음식물 먹이기 및 머리 자르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5) 예절

인도인에게 있어서 종교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종교에 있어서의 예절에 많은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영적으로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는 예배 장소에서의 행동과 옷차림은 항상 경건함을 유지 해야 한다. 성스러운 장소에 갈 때에는 신발을 벗도록 하여야 하며, 이슬람교나 힌두교 사원에서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 간단한 현지인에 대한 종교예절로는 현지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거나 발바닥으로 사람, 성지, 신상을 가리키는 것을 무례한 행동에 해당되며, 발로 사람을 건드리는 행위도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일상 생활에서의 경우 북인도의 경우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 등 존중하는 대상에게 존중을 표하는 의미로 인사를 할 때에는 ‘아담’이라 일컫는 행위로 존경을 표하기도 하며 꽃을 달아 이를 표하기도 한다. 현지인들이 이름을 부를 때 ‘-지’를 붙이는 행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말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6) 금기

위에서 언급 했듯, 인도 현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예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성스러운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장난을 치는 행위들은 반드시 삼가야 할 행위이다. 특별하게 자이나교(Jainism)사원에서는 생리중인 여성은 출입을 금하는 규정도 있다. 이와 같이 각 종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금기시 되는 행위들이 있다.

7) 대중문화

(1) 영화

인도인의 영화에 대한 관심의 도시의 발전 수준이나 도시의 빈부에 상관없이 도시마다 많은 영화관 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텔리와 같이 도시가 많이 발전한 경우에는 시설이 좋은 멀티 플레이스와 같은 형태로 영화관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하란푸르 지역과 같은 도시의 경우는 시설이 많이 낙후된 영화관 시설에서 영화가 상영된다. 사하란푸르 지역에만 해도 5개 정도의 영화관이 있을 정도로 인도인의 영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영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생활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낀다. 특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그들의 영화를 통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리 만족은 보기보다 컸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물이 들어 오면서 이에 대한 호기심을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 해소하고 있다.

(2) 음악

인도 음악의 경우 음악만 독자적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영화와 함께 하며 영화 속에서 함께 나온 음악이 대중가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젊은 층에서 즐기는 음악의 대부분이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이다.

8) 관광지

인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이 넓은 영토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 중 북인도 UP주의 주요 관광지로는 아그라(Agra)지역의 1526년 무굴황제 바버르(Babur)에 의해서 수도가 세워지면서부터 이어진 건축물들이 주요 관광 자원이다. 16세기와 17세기 중엽 사이 최고의 융성기를 누리며 지어진 요새, 타즈마할(Taj Mahal) 및 아그라의 주요 무덤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아그라 성(Agra Fort), 무썸만 부르즈(Musamman Burj), 저항기르 궁전(Jehangir Palace)등의 주요 관광지가 위치한다.

9) 요약

인도의 문화는 곧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도 문화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각 종교와 인도의 문화를 이루어왔기 때문이다. 인도 이슬람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결혼, 직업, 생활 등에 있어서 강한 내부적인 규율을 지니고 이를 통해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서조차 간섭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때때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인도의 강한 문화, 종교적인 성격은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선교에 있어서 인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전략적인 선교가 요구된다.

7. 교육분야

1) 개요

인도의 교육은 현재 1950년 카스트 제도가 인도 헌법상 폐지된 이후, 하층 계급의 신분상승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실제로 인도의 초대 법무 장관을 지낸 암베드 카르(Ambedkar)의 경우 불가촉천민 출신이었으나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다.

사하란푸르 지역에는 이슬람 교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과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외곽에 위치한 데오반드(Deoband)지역에 걸쳐 유명한 이슬람 학교가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있다.

2) 현황

인도의 교육은 헌법에 따라서 14세까지 아동교육은 의무 교육이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688,000개의 초등 학교와 110,000개의 중등학교가 있으며 3차 교육 기관으로 11,089개의 전문 대학교와 259개의 4년제 대학교가 있다. 인도의 정부적인 차원에서 인도의 발전과 함께 교육 수준도 끌어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지만 현실은 아직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고대의 철학과 과학의 중심지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각 분야의 위인과 그 업적이 남아있다. 한 예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주도 했던 간디를 통한 현대의 철학발전과 영(0)의 개념과 음수(陰數)의 개념을 처음 개발함으로써 수학에 있어서의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사하란푸르 지역 내에 위치한 마자히르 울 울름(Mazahir Ul Uloom) 이슬람 신학교의 학생수는 약 1,000명이고 선생님은 35명 정도이다. 무슬림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입학금과 등록금이 없다. 20-30평 정도의 기숙사에 30명 정도가 생활한다. 8살부터 입학이 가능하며 무슬림이라면 외국인도 입학이 가능하다. 9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5학년과 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학교에는 매우



〈그림 Ⅲ-9〉 마자히르 울 울름 이슬람 신학교

큰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데, 사하란푸르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3) 대학

인도의 대학교육의 특징은 첫 번째로 시대가 흐르면서 높은 교육열에 따라 연구 기관들에 의한 인재 양성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인도의 주요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일반화 대학이 아닌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붙여진 상대적으로 인력과 작은 연구, 교육을 함께 행하는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M(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IMS(All India Medical Sciences)등 대부분의 우수 인력들은 일반대학이 아닌 연구와 교육이 함께 운영되는 연구소 출신이 많다.³⁴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IIT, IIM을 전국에 설립하는 노력을 통해서 인도 교육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실전에서 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비약적인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림 Ⅲ-10〉 다룰 올룸 데오반 이슬람 신학교

사하란푸르 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데오반드(Deoband)지역은 뉴델리에서 자동차로 약 6시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학교인 데오반니(deobandi)³⁵ 계열의 다룰 올룸 데오반드(Darul Uloom Deoband) 이슬람 신학교가 있다. 이 이슬람 학교에 약 3,5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이들은 졸업 때까지 13년 동안 기숙생활을 한다.

매년 1만 명의 지원자 중에 800명의 후보자가 선발되어 무상교육을 받는다.³⁶ 약 1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및 다양한 국가에서 학생들이 입학하며 이맘이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얼마나 많은 샤이드 종족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요약

³⁴ 김도영, “인도 교육의 특색”

³⁵ 탈레반을 형성시킨 극우파로 분류되는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순니파 계열을 일컫는다.

³⁶ 베리타스, “이슬람·힌두 간 증오, 인도 ‘테러 천국’으로”, (2009년 3월 9일)

현재 인도 I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와 각 소규모 연구소의 실전에 맞춘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정규 교육기관의 수를 보면 확인 가능하듯 이를 바탕으로 인도의 성장은 날이 갈수록 그 힘을 더하고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은 개발에서는 낙후되어 있지만 유명한 이슬람 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무슬림 지도자를 길러내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 사회에서 무슬림은 빈곤층 힌두교도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아간다. 이슬람교도들이 인도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6-14세 어린이의 1/4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학교를 떠났다는 보고도 있다.³⁷

운 좋은 사람들은 무상으로 이슬람 교육을 받을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의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능력 없는 정부의 낮은 교육 서비스 대신,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이들을 향한 탁월한 선교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종교분야

1) 개요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4%는 크리스천 인구, 약 20%는 무슬림 인구, 그리고 약 13%가 힌두교 인구이다. 이 중 무슬림의 25%는 중동에, 12%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나머지 60%는 모두 아시아에 분포되어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인도권 무슬림은 4억 5천만 명으로서 전세계 무슬림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인도에 사는 무슬림은 1억 7천만 명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이다. 또한 인도의 다수는 힌두교인이다. 인도의 전체 종교 비율은 힌두교 80.5%, 이슬람교 13.4%, 기독교 2.3%, 시크교 1.9%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인도는 힌두교의 국가이자, 이슬람 국가로 볼 수 있으며 소수의 기독교와 시크교가 존재하며, 불교의 발상지이지만 현재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갔다.

2) 종교현황

³⁷ 김도영, “인도 교육의 특색”

인도는 역사적으로 불교와 힌두교의 발생지이며 이슬람이 번성하게 된 시기는 12세기 이후 이슬람의 인도 침입이 본격화 되면서부터이다. 북인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슬람 왕국에 의해 지금도 북인도에는 이슬람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 UP주는 종교의 요람으로서 시아무슬림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인구수로 볼 때도 UP주는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사하란푸르 지역은 UP주 내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 9천만 명 정도로 이는 북인도 인구의 12.5%, 전체 무슬림의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물론 인도 토속 종교라 할 수 있는 힌두교의 비율은 70%이며 힌두교는 정치와 연관하여 그 세력 또한 정치적으로 미치고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의 주 종교는 이슬람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권을 형성하여 큰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3) 종교특징

본 조사팀은 사이드 종족이 다른 무슬림 종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이슬람을 따르는 종족임을 알게 되었다.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이슬람 문화였고 이들의 마을 내에서도 철저히 지키는 집안과 약식으로 줄여서 하는 집안의 모습을 보았다. 이들이 특별히 꾸란을 보거나 기도에 열심을 보이거나 보다는 생활 속에 자연



〈그림 Ⅲ-11〉 사하란푸르 지역 내의 이슬람 사원

스럽게 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릴 때는 꾸란과 알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마을 지도자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인도에서 일반직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들은 어릴 때 시간을 내어 배운 후 직업을 위한 일반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종교적인 특색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많이 와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종교지도자와 이맘 등은 종교의 대표자로서 열심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복장, 돼지고기, 여성에 있어서 많은 종교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다. 몸을 허리를 중심으로 하부는 부정한 것, 상체는 정결한 것으로 여겨 대부분 반바지를 입지 않는다. 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따라서 고기를 먹는 서양과 아시아인은 매우 부정한 것을 먹는 부정

한 존재로 여겨진다.

종교적인 감수성에서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자신을 개종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무슬림에게 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이다. 가족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생활 문화까지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다. 그러기에 이슬람권에서는 개종을 위해 다가오는 외국인들을 매우 경계한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견고히 서있다.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성부성자성령을 믿는 3신을 섬기는 종교이다.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는 그리고 세상에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만 믿는 이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3신을 섬기는 것으로서 부정한 것이라 여긴다.

또한 생활 면에서 무슬림에 비해 성적으로 개방적인 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볼 때 매우 부정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남성 여성 모두 옷을 짧게 입고 특히 하체를 드러나게 해놓고 다니며, 문화적으로서 성적인 문화가 많이 담겨있는 서양 및 이슬람 외 문화는 그들에게는 매우 부정한 것이다. 이들의 신앙관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부분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꾸란은 기독교를 가장 친한 친구로 하늘의 책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 기록한다. 그러나 역사 속의 기독교가 걸어온 자취와 이미지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많은 부정적 이미지가 새겨지게 되었다. 기독교내의 이슬람과 기독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이슬람을 대적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 선교를 하면서도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많이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수용하고 받아들여 우리의 주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의 본질에 충실 하다면 무슬림의 문화적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4) 종교지도자

사하란푸르 지역 내에서 전문적으로 이맘과 종교지도자를 배출하는 마자히르 울 울름(Mazahir Ul Uloom) 이슬람 신학교에서 10세 미만의 많은 아이들은 수년 동안 이슬람, 꾸란, 역사 교육을 받게 되며 이들이 장차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종교 지도자가 된다. 이들은 모두 이슬람교의 지원으로 양육과 학업을 유지해가고 있다.

본 조사팀은 인터뷰를 통해 사하란푸르 지역 내 종교의식을 드릴 수 있는 모스크는 약 40여 개가 존재하며 무슬림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UP주 전체로는 약 2,730만의 무슬림 인구가 존재한다

5)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 특히 북인도의 무슬림은 다른 국가 무슬림과는 달리 소외 당하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힌두교에 의한 핍박을 받기도 하며 힌두정치세력에 의해 지역의 경제적 지원이 단절하거나 원할히 되지 않아 대다수가 가난한 무슬림이다.

오히려 힌두교는 정치세력화 되어 BJP라는 힌두교 정당이 있으며 인도 내에서 2번째로 많은 의석을 가지고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힌두교 정당은 과거 극단적으로 개신교를 핍박한 사건으로 인해 인도 자국민들로부터 많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왔고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패하여 종교적으로 중립이며 경제 발전을 주요시하는 콩그레스당에게 정당 자리를 빼앗겼다.

6) 요약

인도는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종교의 발생지이기도 하며 거대한 힌두교와 이슬람 국가이다. 이러한 다수의 종교와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생 또한 인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너무나 다양하기에 모든 것을 인정하는 인도에는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으로 인해 분쟁과 갈등도 존재하며 자국 내 다수인 힌두교는 정치세력화 되어 있어 매우 거세게 타종교를 핍박하기도 한다.

오히려 힌두교의 과다한 핍박 정책은 인도 자국민들에게 점점 신뢰를 잃고 있으며 힌두정당을 정치계에서 패배시킨 만큼 인도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지금이 기독교가 인도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할 때인 것이다.

9. 기독교 상황

1) 기독교 개요

인도는 1세기 초대교회의 사도 도마가 인도로 전도 온 것을 시작으로 2천년 이상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서양의 카톨릭과 기독교 선교단에서 많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보내어 복음화를 많이 이루어 왔다. 그 결과 비율로는 적지만 그 수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보다 많다. 또한 파송 선교사 수 또한 우리나라는 공식 2위이지만 인도는 선교사를 자국 내로 파송하여 숫자로 보면 세계 2위이다. 또한 인도 자국 내에 스스로 크리스천 선교회 또한 존재한다. K.P 요한안이 GOSPEL FOR ASIA라는 선교단체를 세워 인도와 주변 아시아 지역을 위해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

2) 기독교 현황

인도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통해 힌디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영화는 찾을 수 없었다. 자국민들은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온 영화들도 보지만 자국민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만든 영화를 좋아한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종교적 중립을 표명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보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마더테레사 수녀를 통해 인도의 일화를 나타내고 있는 영화를 볼 수 있었다. 마더테레사의 일대기를 나타낸 영화로서 현지 영화관이 아닌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 영화들을 구매를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센터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기독교 영화는 상영할 수 있는 여건이다. 방송매체 또한 다분히 종교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UP주에는 과거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들이 있다. 스탠리 존스(Stanley Jones)³⁸가 정신병원과 함께 세운 교회는 꽤 큰 교회로 성도수가 200명 이상 되는 규모이다.

사하란푸르 지역 내에도 지명 이름이 미션 컴파운드(mission compound), 처치 컴파운드(church compound)라고 하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있었다. 본 조사팀은 이 곳의 예배가 순서가 정확히 정해진 장엄한 분위기와는 달리,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인도의 분위기에 맞게 찬송의 비중이 높고 인도 전통음악 같은 신나는 찬양이 넘치는 예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도 수는 50~60명 정도 되어 보였으며 정시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제나 나눔 없이 예배 후 다시 다들 흩어졌다. 현지 교회의 목사님이 예배 후 성도들을 만나서 나누는 약간의 시간만 있을 뿐 한국 교회에서의 화목하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없었다. 인터뷰를 통해 큰 열정을 가지고 복음전파를 중요시하는 교회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3) 기독교 인식³⁹

외국인들이 무슬림 마을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들에게 의심이 여지가 된다. 이들에게 그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지라도 그들의 인식과 문화 속에 이미 개신교는 전도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오해가 있다. 따라서 현지 문화, 특히 무슬림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무슬림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많은 부분에서 문화적 종교적 인식과 견해의 차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주기 쉽다. 따라서 사전에 복장, 음식, 문화, 사상

³⁸ 1907년 미국 감리교 선교국으로부터 인도 선교사로 파송 받아 인도 식민지 시대에 인도의 최하층계급 가운데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90세 때까지 인도에서 평생사역을 하였다.

³⁹ 본 내용은 2009년 7월 14일 현지 Y 선교사(남, 40대, 기독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관등을 정확히 알고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매우 중요하다.

4) 요약

북인도에는 전체 무슬림의 70% 달하는 9천만 명의 무슬림이 존재한다⁴⁰. 물론 힌두교의 숫자는 인도의 제일의 종교인 만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슬림과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슬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열매가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아직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만큼 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며, 또한 어렸을 적부터 이어져 오는 꾸란과 알라에 대한 예배는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와 하나의 신이 아닌 3명의 신을 섬기는 행위, 그리고 꾸란을 변경하여 성경으로 사용한다는 왜곡된 이미지, 서양의 개방적인 문화로 인한 오해로 남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 대한 배척은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으로까지 이어져 있다.

이런 북인도의 무슬림들에게 기독교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종교 형식보다 본질에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몸소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사역을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신 것과 같이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무슬림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 됨을 깨닫고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⁴⁰ 선교타임즈, “인도권 무슬림에 대한 연구”, (2009년 08월 14일)

IV. 인도 사하란푸르 지역의 현재 이슈들

1. 인도의 대선 결과

1) कांग्रेस당(Congress Party) 집권으로 인한 변화

무엇보다 큰 이슈는 대선 결과가 어떠했는가 일 것이다. 힌두교 정당인 BJP당과 경제발전 중심의 종교적 색채를 가지지 않은 कांग्रेस 당이 이끄는 정치 연합인 UPA가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많은 정황으로 볼 때 힌두교 정당이 인도를 이끄는 것 보다는 कांग्रेस당이 이끄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कांग्रेस당은 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많은 나라와의 무역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인 벽이 많이 낮아지고 다른 나라와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과의 문화적 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고 이로 인한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많은 거부감도 줄어들 수 있다.

2) 힌두교 정당 세력의 위축

힌두교 정당의 패배를 통해 종교적인 분위기의 변화 또한 예상할 수 있다. 오랫동안 주에 있었던 기독교인 핍박이 힌두교정당에 의해 알려진 것은 인도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힌두교 정당은 कांग्रेस당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무슬림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을 주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인도의 무슬림은 다른 국가에 비해 힌두교 정당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집단이다. 이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무슬림에 대한 거리낌 없는 접근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마야와티의 정치 공약: 사하란푸르 지역의 발전가능성

인도 특히 사하란푸르 지역이 기대하는 이슈가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을 포함한 UP주의 주지사인 마야와티는 사하란푸르 지역 출신이다. 또한 마야와티는 UP주를 서(西)UP주와 동(東)UP주로 나눌 것을 공약하였다. 그리하여 서UP주의 수도를 사하란푸

르 지역에 세울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 된다면 사하란푸르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좀더 활발한 선교활동의 토대를 만들 수 있고 기존의 선교사들에게도 좀더 나은 문화, 생활 환경이 주어짐으로써 선교 활동에 개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V. 사이드 종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선교의 역사

인도로의 기독교 전파는 초대교회의 사도 도마의 전도로 시작된다고 전해진다. 여러가지 사도 도마가 전도한 경로가 전해지지만 정확한 것은 사도 도마가 분명 인도 전도를 했다는 것이다. 도마 선교사의 인도 남부 전도를 통해 남인도에 많은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도마 사후 유능한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낀 인도 교회는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여 판테누스(Pantanus, 200년경) 선교사가 뛰어난 학식으로 인도의 브라만과 인도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영향을 미친 선교사집단은 페르시아 교회 하에 있는 네스토리우스학파(Nestorius)⁴¹라고 전해진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많은 영향력을 선교적인 영향력을 미치다가 페르시아에 박해를 피해 도피한 교인들이 인도 서부와 북부 지역에 흩어졌고 이들은 열정적으로 선교에 임하였다.

그 이후에는 카톨릭 선교사인 도미니크 요다누스(Dominique Jodanus), 프란체스코 자비에르(Francisco Xavier, 1549)등이 인도 선교에 헌신하였지만 힌두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78-1582) 또한 인도에서 4년간 사역하였다. 그는 예수회 선교사들과 동행하며 깨달은 교훈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그 이후 그는 중국으로 넘어가 개척선교를 하게 된다. 로버트 드 노빌리(Robert de Nobili, 1577-1656) 카톨릭 선교사에게서 많은 진전을 이룬다. 그는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하면서 동서양의 문화가 문제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인도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언어, 음식, 의복, 주택 등을 모두 인도식으로 바꿨다.

41 431년 에페소스공의회(도적교회회의)에서 이단으로 선고된 후, 451년 칼케돈공의회에서 재차 단죄되었다. 5세기경 네스토리우스는 페르시아로 망명,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국왕의 보호를 받아 지지자를 규합하였다. 7세기경, 페르시아가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게 된 후에도 네스토리우스파는 계속 남아 아라비아 북부 · 인도 · 몽골 · 중국 등지에 포교하였고, 당(唐)나라 때 중국에 들어가 경교(景教) 피사(波斯:페르시아) ·大秦(大秦:로마)이라는 이름으로 번창하였다. 13세기 후반에는 페르시아 등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크게 융성하였는데, 14세기에 이르러 티무르가 지배하면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아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거의 절멸하고 말았으며, 살아 남은 일부도 16세기에 로마교회에 흡수되었다. 아르메니아에 남아 있던 일부 신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를 배반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희생을 당했고 나머지는 추방되었다. 극도로 미미해진 이 세력은 이라크 북부 등지에 5만 명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타밀고전, 텔루구, 산스크리트에 통달, 힌두경전도 연구하였다. 그는 브라만 계급을 전도하였다. 사역이 확장함으로서 낮은 카스트 사람들도 신자가 되었다. 그는 카스트를 매우 중요한 인도 문화의 요소로 보고 선교사업을 양분화 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즉 브라마나산나시스(Brahmanasannyasis)는 신분이 높은 카스트를 위해서 활동하는 선교단체로, 판다라스와미스(Pandaraswamis)는 브라마나산나시스의 사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하류계급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선교단체로 나누었다. 1643년 예수회 연례 서한의 추산에 의하면 37년간 600명에 달하는 상류 카스트 출신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에 의해 개신교의 선교시기가 도래하였다. 영국 선교사들과 미국인 선교단을 통해 인도 선교가 이루어졌다. 1900년대에는 스코틀랜드 연합 자유 교회와 미국 개척 교회가 합동하여 남인도 연합 교회를 형성하였다. 이런 연합 교회의 시작으로 1947년에는 남인도 연합교회와 남인도 성공회가 합하여 대규모의 남인도 교회를 형성하였다. 1955년에는 북인도 교회, 성공회, 북인도 감리교회, 영국 오르트리아 계통의 감리교회, 그리고 북인도 침례교회 등이 참석하여 북인도 합동 교단이 조직되었다.

2) 국제 및 한국 사역단체(NGO 포함)의 활동현황

현재 텔리에서는 R선교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이 진전상태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텔리 신학대학교가 개강되어 훈련된 신학생을 통해 인도의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단체들에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많은 재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본 조사팀이 방문한 Y선교사는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s,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부)의 리서치 전문 선교사와 연합하여 북인도 지역에 대한 심화된 리서치를 통해 효과적인 복음화 선교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인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 유닛(unit)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본 조사팀이 만나본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의 지구촌교회에서 전략적으로 북인도에 대한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닛만 해도 5유닛 이상으로 전략적으로 북인도 선교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략적으로 파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조사팀은 지난 13기 조사팀이 UP주 렉나우의 시아무슬림을 조사한 이후 북인도 지역에 대한 선교의 관심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음을 여러 통로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영적 상황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생활하며 선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정부는 종교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표명일 뿐 많은 부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경우 정부에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2008년에 일어난 오리사주(Orissa State) 사태 또한 공개적으로 세계에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고 이번 조사 중에 알게 되었다. 힌두교 정당들은 여전히 힌두교를 제외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에게 핍박을 가하며 어떻게든 인도에 세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

무슬림 내 결속력 또한 매우 선교를 어렵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진 이슬람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접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공동체로 되돌아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이슬람 내 강한 공동체성과 배신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으로 볼 수 있다.

사하란푸르 지역은 대부분 무슬림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소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매우 쉽게 눈에 띈다. 동네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이 금방 퍼지기 때문에 자국 내 사람이 아닐 경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일거수 일투족이 사역이 되어야 한다.

2. 사이드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1) 종족 외부적 방해요인

(1) 지리적 요인

사하란푸르 지역은 UP주에서도 북서부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UP주가 많은 부분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낮은 접근성에 기인하여 경제발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UP주 안의 70개나 되는 디스트릭트 중에 지리적으로 가장 외곽에 위치한 지역 중 하나인 사하란푸르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뉴델리와 같은 대도시로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젊은 인력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계속적으로 경제가 침체하게 되어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복음을 전할만한 역동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2) 부패한 인도사회

부패한 인도사회는 또 다른 복음방해의 요인이다. 정치구조의 부패는 자연스레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선교 지원을 한국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안정적이지 않는

금융문화는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요소이다. 한국에서 송금한 비용을 자신의 것임에도 받는데 한달 이상이 걸리는 실정이다.

(3) 낙후된 인프라

상하수도 시설의 부재와 전력의 또한 선교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다. 우선 이러한 생활의 문제는 당장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 살고 있는 선교사들의 삶을 매우 지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오면 우선 생활의 문제에 직면하여 지치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드 종족들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질 수 있으므로 복음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4) 이슬람 공동체성

이슬람 세력이 강한 사하란푸르 지역과 사이드 종족의 강한 이슬람 공동체성은 복음화의 방해요인이 된다. 이슬람 사회에서의 개종은 공동체에서 이탈되며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개종 이후의 삶이 보장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가 같이 회심을 하거나 가족이 함께 회심을 하지 않을 경우 겪는 어려움 앞에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2) 종족 내부적 방해요인

(1) 사이드 종족의 강한 정체성

사이드 종족은 혈통적으로 매우 자부심이 뛰어난 민족이다. 그들은 다른 무슬림과는 달리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혈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종교적 자부심 또한 매우 강하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매우 견고한 진을 뚫는 것과 같다. 이들은 자신의 종족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 알고 있고 혈통에 대하여 깊은 자부심이 있으며 또한 다른 무슬림들도 이들을 존경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사원의 선생, 종교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복음화하는데는 많은 지성적인 요소 또한 갖추어야 한다.

(2)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는 동양인 서양인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다. 그 마을에 새로운 외국인이 이사를 오게 되면 매우 큰 관심을 보이며 무슨 일하고 있는지 왜 왔는지 등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문들이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들의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은 선교의 방해요인이 된다.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

기존의 선교는 학교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이루었다. 외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현지인을 전도하여 현지 사역자로 키우기도 한다. 그리고 사역의 규모가 커지고 인정받기도 한다. 하지만 점점 이러한 사역들이 드러날수록 위험에 노출된다. 기독교적인 마인드, 외부인 선교사가 함께 있다면 주위에서 자신을 개종시키려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불신을 담은 모함을 많이 하며 여러가지 요소들로 꺾박을 한다. 결국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로 집을 빌리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많은 기독교에 좋은 인상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람들까지 서서히 떠나기 시작한다. 곧 이러한 어려움과 위협은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조금씩 파송된 사역자와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여 결국 모든 사역이 점점 와해되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의사, 영어교사, 비즈니스를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런 인재들을 현지에서 찾는 것도 힘들며 또한 많은 외부단체에서 받기도 쉽지 않다.

또한 현지 선교사들이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지원이 부족하다. 외부에서 살다가 인도 현지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필요한 많은 물자 및 생활 용품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선교 이전에 생활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당장 인도 여름은 40도를 육박하는데 외국인 선교 가정에 에어컨이 필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에어컨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한국처럼 바로 바로 배달되지 않아 기다리는데 지치게 만든다. 또한 정전이 일어나 선풍기조차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발전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 하나 구입하는 것도 선교사에게 비용에서 구입과정까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들이 현지 조건에 맞게 세트화 지원이 된다면 생활을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3. 사이드 종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1) 기존 방해요소들의 변화

마야와티의 공약에 의해 이전보다 도로상황이나 배수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도가 경제 발전으로 밖으로 닫힌 문을 열어가면서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경험하고 이들의 국민성이 더 고양되어 부패한 인도사회가 정의로워지길 기대해볼 수 있다. 인도사회의 부정부패와 정의롭지 못한 특성들이 급격한 경제발전과 서구문물 유입으로 자칫 물질만능주의로 기울어질 수 있지만,

세계로 시야를 넓혀 이들의 국민성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세계 및 한국 선교상황의 변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의식 있는 교회가 북인도 지역에 많은 선교사를 단기로 장기로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인도 지역이 하나님의 필요와 일꾼이 있어야 함을 알고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과 증보를 하고 있는 것은 큰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선교 정세가 무슬림에 대한 전략과 복음전파가 점점 시급함을 깨닫고 그에 따라 많이들 무슬림을 복음화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U단체에서도 리서치 전문가를 북인도 지역에 파송하여 북인도의 한 지역에 거주하며 전략적으로 리서치를 함을 알 수 있다. 5년간의 한국 선교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 및 선교 단체 파송 선교사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⁴² 전체적인 한국의 기독교 성장은 멈춰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는 단체와 교회 의식은 높아짐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3)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1) 사이드 종족의 실질적인 필요

현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의 필요를 불러일으키고 좀더 나은 직업으로 나아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업 교육과 영어 교육을 통해 이런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 마을 곳곳에는 대학을 다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 소규모 방과후 교실이 많이 열리고 있었으며, 현지 사역자가 센터를 통해 컴퓨터 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은 마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 가족과도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고, 가족과 가족은 쉽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마을과의 접촉점도 찾을 수 있다.

(2) 영향력 있는 사이드 종족

사이드 종족은 다른 종족들이 존경심을 품는 왕족 혈통의 가문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복음의 강력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이들의 권위를 통해 복음이 더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계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사이드 종족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다.

⁴²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www.kwma.org (검색일: 2009년 11월 18일)

(3) 기독교 회심자를 위한 배려와 이해

현지의 많은 무슬림과 힌두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종의 문제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임을 제대로 인식 해야 한다.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가정 환경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과 단절된 삶을 살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적인 지원과 도움 인식이 필요하다. 그들의 문화와 삶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 문화와 삶으로 돌아가고 적응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본질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배려 또한 필요하다.

4) 성공사례

(1) 기존 선교사의 선교전략

기존에 많은 선교사가 교육과 의료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선교의 사역이 크게 이러한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많은 부분 복음의 접촉점을 제시해 주어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기독교임을 나타내었을 때에도 많은 현지인들이 사역자의 교육과 의료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현지의 사역자를 데려오거나 양육하여서 외국의 선교사들은 서포터를 하며 실제로 사역하는 얼굴로는 현지 사역자를 세워서 외국인 선교사가 직접 선교를 하게 될 때 오는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어 좋은 선교 모델로 들 수 있다.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선교사가 현지인과 거의 같이 동일시 되는 것이다. 그 리하여 현지에서 현지 마을에서 적응하여 마을과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며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기존의 선교 전략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기존 성공 전략 (상황화, 총체적 선교 등)

위에서도 많은 부분을 언급하였듯이 무슬림 선교의 경우 시간과 노력에 비해 많은 부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을 자주 하였다. 실제로 교육이나 의료 사업 중심으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공 사례는 거의 없이 그 당시만 반짝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대한 기존의 전략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선교 전략들이 꾸준히 행하여 지고 계속 보안 발전해 나가고 있다.

(3) 복음화된 종족과의 유사성

인도 중동부에 위치한 오릿사주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주이다. 인구는 대략 3천 2백만 정도되는 이 곳에서 칸다말(Kandhamal)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이름이다. 10여 년 전 만 해도 이 지역은 2%의 복음화도 이루지 못한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은 지금 약 28%의 기독교인이 생겨난 주가 되었다. 이렇게 기독교 인의 수가 급성장하면서 힌두교 강경 집단의 대규모 폭박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사하란푸르 지역은 북인도 UP주 가운데도 가장 가난한 주에 속한다. 가장 낮은 계급에서 복음화의 진전이 많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선교의 전략적인 계층으로서 불가촉천민 집단과 가난하고 소외 받는 집단에게 복음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해 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복음화의 진전에는 지역을 위한 순교자가 있다. 그 지역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끝까지 그 지역을 위해 남아서 돌아보았던 선교사가 있었기에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오릿사주에는 10년 전에 힌두교 폭도들에 의해 두 아들과 함께 불에 타서 순교한 스테인 선교사가 있었다. 현재 UP주 사하란푸르 지역에도 사역을 위해 헌신된 이들이 있으며 UP주 가운데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다. 이들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섬김이 선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4. 사이드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기존 무슬림에 대한 선교 전략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기독교나 외국인에 대한 그들의 편견은 기독교가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높은 벽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선교에서 행해졌던 의료나 교육 봉사를 통한 섬김은 물론 실질적인 열매는 없었을 지라도 그들의 관심과 그들에게 접근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무엇보다 훌륭한 다리가 되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공동체 의식이 투철하고 외부에 대한 배척이 심한 그들의 생활 모습에 이것만큼 훌륭한 접근법은 없어 보인다.

위에서 많은 부분에서 과거의 선교 열매가 없었던 것을 언급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선교가 아주 불가능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다. 짧은 기간 내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료나 교육 선교를 통한 그들과의 친분을 쌓은 뒤 선입관이 제거된 뒤에야 이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꾸란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방법을 사용한

다면 그들의 선교도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별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다양한 계층에 각기 다른 전략들을 제시하여 그들에게 맞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의 각 계층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크고 도시의 장소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슬림의 경우 대부분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으며, 도시의 외곽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조차 미치지 못해 도시와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 학교조차 없는 곳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과의 친분을 유지하며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하는 선교가 오랜 기간 행하여 진다면 그들에게도 곧 열매가 맺어지리라 생각된다.

2) 대상별 전략 제언

(1) 유소년층 대상의 교육선교

무슬림은 인도사회에서 비주류 집단이다. 실제로 최하층 힌두교인보다 더 낮은 계급으로 취급 받는 것이 인도 무슬림이다.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지만 무슬림은 6-14세 어린이의 1/4이 전혀 교육을 못 받고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높은 교육열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때에 교육선교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힌디어나 영어 그리고 컴퓨터와 같이 시간이 흘러서 일자리도 구하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행하여 진다면 무슬림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질 때 이들이 청년으로 자라나면서 참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2) 청장년층 대상의 기술학교

청장년층의 경우 일자리와 관련된 기술 교육이 행해진다면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재봉기술과 같은 기술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대기업이 사하란푸르 지역에 진출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청장년층에 맞는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무직자들도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 학교 및 일자리 제공이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3) 중장년층 대상의 비즈니스 선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가운데 이들이 느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져가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사회사업이나 일자리 제공과 같은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면 그 가정 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장이 가족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크므

로 중장년층의 회심은 가족의 회심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4) 여성 상담 사역

여성의 경우에는 무슬림 사회에서 많은 부분 억압받고 피해를 본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나누고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 정신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이 많다. 이들을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아껴줄 친구가 되어 상담을 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면 이들을 통해 좁게는 가정, 넓게는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분야별 전략 제언

(1) 의료선교

인도 카스트 제도나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로 인한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은 전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료로 행하여지는 의료 봉사는 선교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지역이기에 기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하란푸르 지역의 경우 도시에서 30분이 채 걸리지 않아 낙후되어 있는 마을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필요가 있는 곳에서 교육이나 의료와 관련된 봉사를 시작한다면 그들의 선입견을 없애는 것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진심으로 대하며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그들의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무슬림의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어렸을 적부터 받아온 교육으로 인한 외부에 대한 거부감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제거한 뒤에야 복음 전파에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기타

위에서 언급했던 무슬림 사회에서 회심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개종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교회를 숨겨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즉, 지하교회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여러 예상되는 테러나 협박으로부터 보호 받을 뿐만 아니라 개종자들에 대한 무슬림 사회에서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현지교회 개척 전략

(1) 전도의 방향성

현지 교회의 경우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통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가난한 지역에 돈을 투자하여 지역 사회와의 친분을 높이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그들 생활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한 예로 이슬람에서 중요시 하는 수염에 대해서 그들과의 조화를 위해 수염을 일부러 기르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 주며 무슬림 사회에서의 외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먹는 음식 또한 돼지고기와 같이 무슬림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었다. 무슬림 복음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들에게 있는 외부의 거부감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이었다. 그리고 이를 없애기 위해 그들의 삶에서 어우러지기 위한 많은 작고 세세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2) 교회의 형태

지하교회 행태를 유지 할 것을 권한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개종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종을 한 신자들에 대한 보호와 또 교회의 보호를 위해서 지하교회 형태로 유지될 것을 권한다.

(3) 현지 지도자 양성

사역자가 현지인을 통해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도에서는 사역자가 현지의 언어로 직접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역자가 자신의 양육하는 제자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감과 동시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도 사역자가 직접 현지 언어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 기타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인도 선교는 단기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년이 걸려도 다시 이슬람권으로 힌두권으로 돌아가기 쉽다. 또한 여름에 40도를 넘는 폭염과 전기, 물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생활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 단기 사역자들에게는 에어컨, 정수기 등이 사치품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선교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전이 될 경우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발전기, 연수기도 꼭 필요한 물품이다. 또한 사역의 열매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V. 나가는 말

인도는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영토, 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종교적으로는 힌두교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면서도 2번째로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여러가지 랭킹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인도는 영적으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급히 찾으시는 땅이다. IMB⁴³에 따르면 인도는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복음화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미전도종족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다수인 힌두교에 밀려 인도 땅에서 하층계급으로 취급 당하며 소외되어 있는 무슬림은 선교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있어 속히 이들을 위해 헌신할 사역자와 선교자원이 필요하다. 본 조사팀이 조사한 샤이드 종족은 UP주의 지역 중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외곽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는 매우 가난한 무슬림 미전도 종족이다. 그들은 타종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 받는 종족이지만 조사를 통해 본 그들의 생활상은 타종족과 다를 바가 없는 낙후된 모습이었다. 샤이드 종족을 겨냥한 본 조사는 사하란푸르 지역의 타 종족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1,652종류의 언어가 있는 인도에서 샤이드 종족은 타 무슬림 종족들도 사용하는 우르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하란푸르 지역은 이슬람의 영이 견고한 지역이다. 사하란푸르 지역의 외곽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신학교가 있으며 외국 학생들이 유학 올 정도로 명성이 있는 학교이다. 신앙심을 가지고 이 학교에 입학하는 자들도 있지만 가난하고 낙후된 그들의 생활에서 종교를 탈출구로 여기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선교전략과 같은 맥락인 총체적 선교 관점으로 이 지역과 종족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인도는 초대 교회 때부터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은 견고한 땅이다. 인도는 선교자원을 심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지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의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주시기를 바란다. 이 지역의 영적으로 견고한 진이 파하여지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한 날이 속히 오길 손꼽아본다.

⁴³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부, International Mission Boards

〈참고문헌〉

김도영, “인도 교육의 특색”

베리타스, “이슬람·힌두 간 증오, 인도 ‘테러 천국’으로”, (2009년 3월 9일)

선교타임즈, “인도권 무슬림에 대한 연구”, (2009년 08월 14일)

임진철, 2003, “인도 선교의 문제점 고찰과 바람직한 인도 선교 전략 연구”

Singh, Sarina, 『론리플래닛 인도』, 안그라픽스출판

네이버 사전, www.naver.co.kr

네이트 사전, www.nate.com

인도관광청, www.incredibleindia.co.kr

인도 대법원, www.supremecourtfindia.nic.in

인도 UP주 웹사이트, www.upgov.nic.in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www.kwma.org

CIA, www.cia.gov

IMB, www.imb.org

India social 웹사이트, www.saharanpurcluster.org